

민선 5기 3년 결산      2 광주·전남 그림 벗자

## 정부 탓 그만 신사업 찾아라

중앙 인적네트워크 구축  
민주당과 협력체제 필요

#1. 새 정부의 첫 예산편성이 한창이던 지난달 6일 새누리당 삼학봉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가 함께하는 '2014년도 국비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 과장·사무관급 8명이 참석했으며, 경북도에서도 13명의 간부가 참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2. '창조'라는 단어가 새 정부의 코드로 급부상한 지난 4월 초 대전시와 인천시는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각각 추켜들고 나왔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묶어 창조과학의 전진기지로 대전지역이 적합하다는 논리를, 인천은 한술 더 떠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신규사업을 위한 대신 보고회까지 열기도 했다.

〈관련기사 5·8·10·11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타 지역에서 발 빠르게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 발굴에 나선에 따라 광주·전남지역도 이명박 정부의 '호남출대' 악몽을 떨쳐내고 빠른 기간 내에 정부의 코드에 맞는 새 사업을 발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호남출대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대립해왔던 광주·전남의 그림자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지역인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영남에 비해 국비확보가 쉽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 정부 내 호남인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주당과의 협조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 7개부처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567명 가운데 출신지역이 파악된 421명의 출신지는 대구·경북이 20.4%(86명)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은 13.8%인 58명에 불과하다. 63명의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호남출신은 8명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23명에 이른다. 중앙부처를 사실상 영남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의 예산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머물고 있는 광주·전남 공무원들은 "올해처럼 힘든 해는 처음이다. 일부 부처는 노골적으로 박대해 서러울 정도"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나 부실한 호남인맥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중앙부처 인맥을 고위직으로 한정 짓지 말고, 최소 5급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급까지 넓히면 호남인맥은 890명으로 늘어난다.

또, 광주시가 이날 창조경제 실현 대응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한 만큼 정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프로젝트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예산확보 등과 관련된 회의결과나 자료는 경증을 떠나 지역 국회의원과 공유하는 등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간 협력무기도 경계대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당지역으로써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은 감수해야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부처를 두 번 세 번 더 방문하고, 치밀하고 꾸준한 지역사업의 중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

##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

盧 "NLL 바뀌야, 서해평화지대 만들자"  
새누리 "국격 훼손" 민주, 수령 거부 반발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3·4면〉

일단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등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향후 외교에 미칠 파장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비밀 생산보

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후 여당 정보위 의원에게 100쪽 분량의 회의록 원본과 함께 8쪽짜리 발췌본을 함께 전달했다. 발췌본은 언론에 공개했지만 전문 공개는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발췌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어 전체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진위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은 전문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은 원본과 발췌본 모두 수령을 거부했으며 '국정원 해체'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역풍에 나섰다.

회의록을 받은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노 전 대통령이 '보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격을 훼손했다고 맹공을 펼쳤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해 "나는 (김정일)위원장님과 인식을 뒤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며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해주 전철을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장도 마음대로 하게 하자"고 말했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이제 '국정원 간관'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사전 조치 없이 통보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없다. 국정원의 항명 내지 쿠데타 혹은 배후의 지시를 받은 '짜고 친 고스톱'이라며 이번 회의록 공개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뜻이 담

겨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 멋대로 일반 문서로 분류해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원이 무엇을 노리는지 명백해졌다"며 "국기문란을 이렇게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는 국정원의 작태를 국민과의 투쟁으로 덮겠다"고 고세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철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6·25 상해 해상기동훈련      24일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6·25 상해 해상기동훈련'에서 해군 1함대 소속 구축함인 광개토태왕함(앞에서 첫 번째)과 호위함인 부산함(두 번째), 조계함이 종렬진을 이루어 해상기동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 "세계수영선수권 광주 유치 확신"

강운태 시장, 내달 1일 접수 마감...19일 개최지 확정

강운태 광주시장은 24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광주 유치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달 1일까지 유치제안서 최종본을 FINA(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하면 모든 유치 절차가 마무리된다"면서 "이미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등 3곳이 제출했고, 아제르바이잔의 바투도 조만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달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9년과 2021년 등 2개 대회 개최 도시 2곳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광주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유치를 확신하고 있으며,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U대회에 이어 광주는 세계적 스포츠 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최근 일부에서 정부

가 관련법(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내년부터 5대 메이저 국제스포츠(올림픽, 아시안게임, U대회,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회만 지원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모든 국제 대회는 유치를 하고 난 뒤에 지원법이 만들어진다"면서 "대회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어려운 것처럼 잘못 알려지면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FINA집행위원 22명은 내달 1일까지 제출된 유치제안서 최종본을 점검한 뒤 오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개최도시를 결정한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홍명보**  
축구 대표팀  
새감독 선임  
▶14면

**박인비**  
LPGA 시즌 5승  
한국인 최다승  
▶14면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6월 24일(화) ~ 28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 The New E-Class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경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1,991cc, 1,633kg, 자동7단, 복합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3km/ℓ(도시연비 10.2km/ℓ, 고속도로연비 14.9km/ℓ), 1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20g/km      • E 250 CDI 4MATIC 2,143cc, 1,84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2km/ℓ(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6.4km/ℓ),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9g/km      • E 300 3,498cc, 1,733kg, 자동7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시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72g/km      • E 350 4MATIC 3,498cc, 1,805kg, 자동7단, 복합연비 9.2km/ℓ(도시연비 8.2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5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92g/km      \*본 연비는 30초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태,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